

4. 朝鮮の國土開發事業 (조선의 국토개발사업)

1967년 8월 25일 友邦 (우방) 세력 제
8호인 기함 함대

友邦協會 (우방협회)는 서만지 통치 시대
朝鮮總督府 (조선총독부)에 근무하던 사람
들의 친목 단체인데 해방후 東京
(도쿄)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

총 86쪽의 이 책은 1929년의 <朝鮮
國土開發事業誌 (조선국토개발사업지) 이후

1945년 해방 당시 까지의 우리나라 조복 사업의 기록이란 점에서 ^{대당형} ~~대형~~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

이 책은 구체적인 기록과 동시에 각 분야의 회고담을 담고 있다

경상북도에서 服部(하도리)라는 헌병대장이 있어 賦役(부역)으로 많은 모를 징수했다 大邱 ~ 慶州 간 모르는 거의 1리 선이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<하도리 모르>라고 불렀다 조선의 모르는 분

洗越(아라이 고시) 라는 특 특한 공법이
 있었다. 프랑스가 건설되어 있지 않은 하천
 에 도로 폭만큼 ~~폭~~ 폭크리 폭 처 놓고 차 폭
 은 이 위 폭 통행 한다. 河川(하천) 개수가
 되기 전에는 다리 폭 건설 할 수가 없다
 왜냐 하면 제방의 위치가 결정 되지 않았
 기 때문 이다. 프랑스의 길 이든 결정 할 수
 없기 때문 이다. 결국 과 노기 적인 工法(공법)
 이 인다. 이것을 <아라이 고시> 라고 부른
 다. 이 ~~洗越~~ 洗越의 한 가운데는 暗渠(암거)

가 있어 평상시의 물은 이곳을 통해

배져 나간다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지

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도처에

<아라이포시>를 볼 수 있었다

1925년이 이른바 Δ 판(음축반) 대홍수

는 홍수 기록 시 역을 현히 한 이래 가장 큰 홍

수였다 이해 강우 전역이 7월 초순부터 9월

초순까지 두달 동안 남북으로 오락가락

하면서 전국 하천을 네번이나 강타했다

특히 7월 18일의 한강 대홍수는 16~18의

나

구안간기온 우량이 650mm에 달하였으니

잡종특우의 점진특우 짐작 할만 하다

이때 한강^의 ~~수위~~ 수위는 12.74m를 기록했는

데 지금까지 이 기록을 어떤 사례는 별로 없다

이 홍수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은 낙동강

과 한강이 있다 이때 서울은 용산의 철

도관사 (표고 약 23m)의 1층 천정까지 물이 차을

볼 아내로 서울역 광장까지 침수 했다

이 당시 서울 인구는 30만이 었다

이 해기는 植民地飢饉期間 (식민지 흉년 기간)

특 1944~1945년까지의 특자액이 기록되어 있다

$\begin{matrix} \text{特} \\ \text{字} \\ \text{額} \end{matrix}$
 特字額
 $2 \text{億} + 7 \text{億} = 28 \text{億}$

昭和三十二年 共 2 億円

昭和三十年 共 4 億円

昭和三十二年 共 7 億円